여름밤, 알프스로 떠나는 유쾌한 멜로디 여행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엔시안요델클럽과 꾸미는 수시연주회, 오늘 북구문화센터

가곡·오페라·뮤지컬 등 다양한 하모니 20여곡 선사

팝송, 가요, 영화 주제곡, 뮤지컬 넘버,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과 함께 시원한 알프스의 멜로디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을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 속 합창문화계 지역예술인들과 광주시립합창단의 새로운 무대로 지역공연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립합창단(사진 위)과 광주엔시안요델클럽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김인재 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펼쳐지는 이날 공연에서는 여러 장르의 음악 20여곡을 독창, 중창, 합창으로 만나볼 수 있다.

광주엔시안요델클럽의 요들송을 비롯해 다양한 악기 연주, 재즈밴드 리디안 팩토리의 흥겨운 리듬과 멜로디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색다른 연주회가 진행된다.

스위스 민속 악기 연주 공연과 즉석에서 관객들과 요들송을 배워보는 유쾌한 시간도 마련됐다.

첫 번째 무대는 혼성합창으로 성악, 뮤지컬 등 여러 분야의 크로스오버 보컬 곡을 합창연주에 어울리게 편곡해 각종 악기들과 함께 재구성했다.

그중 '나브라스'는 영화 '매트릭스'의 OST 곡을 효과 있게 변화를 준 합창곡이다. 주문을 외우듯 지르는 높은 톤의 목소리와 밴드의 울림이 혼합돼 웅장한 마무리로 뜨거운 여름밤을 장식한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영화 '파리넬리'에서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성 가수)의 목소리로 불러 유명해진 '울게하소서'를 카운터테너 김대성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다음으로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아리아 '하바네라'를 메조소프라노 김혜원의 목소리로 선사한다. 아울러 에릭 레비의 '나는 믿어요'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아리아 '대성당들의 시대'가 남성합창으로 울려 퍼진다.

독창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장은지가 '노래하지 마오, 아름다운 여인이여!'를, 베이스 김창식이 윤학준의 '마중'을 각각 들려주며, 이어지는 여성합창 무대에서는 '그리움만 쌓이네'와 '회상'을 연주한다.

광주엔시안요델클럽의 무대도 마련됐다. 알프혼 중주, 외르겔리 합주, 우드스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연주가 펼쳐지며,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에델바이스'를 광주시립합창단과 함께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혼성합창으로 아르헨티나 탱고음악 '리베르 탱고', 보컬 재즈 '인 더 무드'가 준비돼 있다.

공연의 대미는 행복이 넘치는 가사에 컨트리 스타일의 음악이 입혀진 대중음악 '라라라'로 장식한다.

한편, 이번 연주에 협연하는 광주엔시안요델클럽은 1977년에 창단, 올해 45주년을 맞이한 광주 유일 한국요델협회 클럽이다.

초창기부터 김홍철 초청 요들 강습회로 실력을 다졌으며 이후 해외연주여행, 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 방송 출연, 정기연주회 등 매년 활발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 현재 광주문화재단 및 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활동 중이다.

/최명진 기자

투박한 보통의 삶 존재의 의미를 묻다

윤성민 개인전, 내달 4일까지 드영미술관

일상적 소재를 통해 인간의 실존문제를 다루는 전시가 마련됐다.

드영미술관은 오는 9월4일까지 윤성민 개인전 '투박한 보통의 삶, 현대인의 존재실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투박한 보통의 삶'을 주제로 한 회화, 미디어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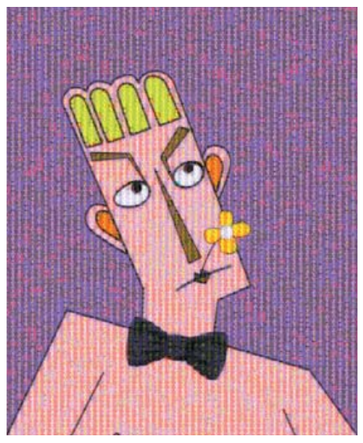
자신의 존재를 묻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작업은 그가 어릴 적 체험했던 불교적 삶에서 비롯됐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해답을 멀리서가 아닌 가까운 일상에서 찾는다.

신체 일부인 발의 형상을 통해 창안한 'TOES MAN' 시리즈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철학적 실존문제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친숙하면서도 기존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독특한 새로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유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작업은 무기력한 현대사회 속에서 긍정의 힘을 갖게 한다.

한편, 윤성민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 회화학과와 동대학원 미술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2022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 2021 제34회 광주시 미술대전 최우수상, 2020 광주시 미술대전 우수상, 아트광주21 참여 등 다양한 작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내존재'

현재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대표작가 및 기획 총괄(전남도지사 우수프로젝트 수상), 예술마중 협동조합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성악콩쿠르' 1위에 바리톤 최준영

전국 성악가 75명 참가

대한민국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젊은 성악가를 뽑는 2022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1위의 영예를 바리톤 최준영씨가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을 진행, 총 13명의 입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본선 경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을 희망하는 관객들을 초청해 대면 심사로 진행했다.

지난 7월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광주성악콩쿠르'는 총 75명이 참가해 2차례 예선전을 거쳐 13명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진출자들은 정율성 가곡을 시작으로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우수한 기량을 겨뤘다.

최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은 정율성 가곡 '매령삼장', 한국가곡 '산촌', 'Si Puo from Opera, Pagliacci(R. Leoncavallo)' 등 세 곡을 화려하고 풍부한 음성으로 불러 1위의 영예를 안았으며, 상금 1천5백만원과 함께 '정율성음악축제' 공연 시 협연 기회를 갖게 됐다.

2022 광주성악콩쿠르 1, 2, 3위 수상자. 왼쪽부터 김태한, 최준영, 이민서.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어 2위 김태한(서울대 재학), 3위 이민서(서울대 대학원 재학), 정율성가곡상 최준영(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우리가곡상 김태한(서울대 재학), 반주상 정서완(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씨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최명진 기자

지나간 시간, 그 장소의 찰나를 담다

광주 동구 아카이빙 사진전 '지나, 가다'展…24일까지 주안미술관

특별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일상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낸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 동구 아카이빙 사진전 '지나, 가다'전이 오는 24일까지 주안미술관(동구 제봉로 197)에서 열린다.

전시 참여작가는 정다운, 이정은, 송진주, 한누리 4인으로 동구 거주경험이 있는 청년들이다. 동구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시선에서 공간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전시는 이들이 본 동구의 모습과 추억, 감정의 기억들을 사진을 통해 돌이켜 보면서 관람객들이 개개인의 추억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인시장, 무등산 운림동, 계림동, 서석동 등 광주 동구 지역의 풍경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주안미술관 관계자는 "광주 동구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이 담긴 사진 작품을 통해 지나쳐간 시간과 공간의 찰나를 붙잡고 그 안에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지역적 공간성을 중점으로 장소에 따른 각각의 장면들을 포착하면서, 각자 느낀 추억과 감정들을 공감하고 삶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 관람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안미술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정은作 '동구의 봄-홍림교'

/최명진 기자

CMYK